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한국인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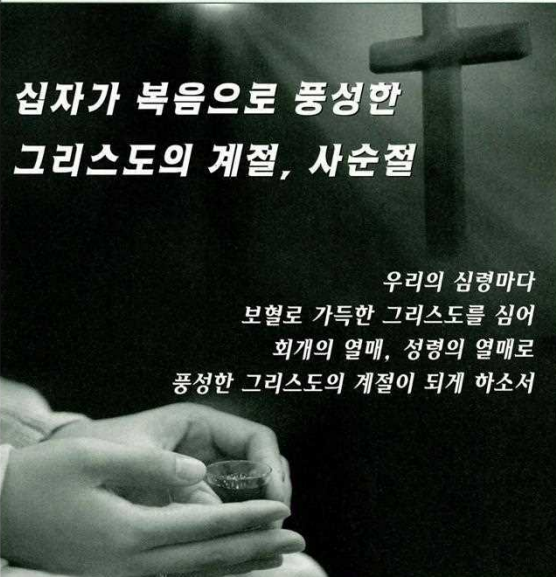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용

십자가 복음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 사순절

우리의 심령마다
보혈로 가득한 그리스도를 심어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사 53:10)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없고, 또 누구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모든 것들을 능가한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에 과연 무엇을 보실까? (시 14:2~3) 모두가 치우쳤고 모두가 더러워졌으며 어느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토록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모든 죄 짐을 지게 하심으로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치루게 하셨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거듭남 시리즈

1. 바리새인 니고데모(요한복음 3:9~12)
2. 혼란과 공허함
3. 거듭남(요한복음 3:3)
4. 거듭남의 증거(요한일서 5:1~5)

5. 물과 바람
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요한복음 3:16)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 말씀 중 “그를 믿는 자마다”의 “자마다”는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라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내포한 말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초청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은 예수께로 오지 아니하는 죄인을 모두 제외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악하기에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한편에서는 예정론을 가지고 반박하기도 한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결코 선택받은 죄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즉 구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만인을 위한 예수의 구속함이 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 3:36)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 22:17; 사 55:1, 3; 갈 3:11)

“자마다”(Whoever)는 한없는 용기를 주는 동시에 또한 놀랄 만큼 무서운 뜻이 담겨 있다. 핑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아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영적으로 다

제2차 성찬식이 오늘 1~5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순절에 맞이하는 성찬식하기에 더욱 큰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사순절의 초점과 그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의 수요일로 시작한 사순절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공예배의 메시지, 금요찬양집회의 거듭남 시리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와 제1차 청지기 훈련의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가치관·타협된 종교관·조작된 성경관을 버리고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새 피조물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라”(시 119:24) 예수님만 믿고 말씀을 붙들십시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가 아니라라도 나오셔서 사순절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십자가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시니”(마 20:33) 사순절은 3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시 태어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죄의 권세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광림을 받아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6:44~45) 이그는 것은 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 물론 감정이 일부뿐이지만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다.

어떤 자들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곧바로 깨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랜 세월이 걸린다. 전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하던 말씀이 재미있고 그 의미 또한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왔다가 또 사라진다. 그러나 아주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느는 것이 싫어진다. 성경이 신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과연 맞는지?’ 확실하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이광림을 받는 과정이다. (출 3:3~5)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요 3:16) 참 믿음은 지적인 반응이 아닌, 마음의 움직임을 이다. (롬 10:10)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야고보는 마귀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믿는다고 했다. (약 2:19) 로마서 10장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그 사람의 속사람 전부를 사로잡는 믿음을 가리킨다. 지성은 사실들을 믿게 한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과 죄 없음을 믿는다.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그저 사실들만을 믿는 평범한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격하며 기쁘고 떨리며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들이지 못하였을 때에 일어날 그 결과를 생각하면 소스라칠 놀라 떨릴 수밖에 없다. (행 4:29~31) 자유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도록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지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움직임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교집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아놓지 아니하리라”(요 6:37) 아멘.

LORD, WE WANT OUR EYES TO BE OPENED

(17)As Jesus was about to go up to Jerusalem, He took the twelve disciples aside by themselves, and on the way He said to them, (18)“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19)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o mock and scourge and crucify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up.” (33)They said to Him, “Lord, we want our eyes to be opened.” (34)Moved with compassion, Jesus touched their eyes; and immediately they regained their sight and followed Him.
(Matthew 20:17~34)

Too many of today's Christian theologians, church officials, and congregational members are deceiving themselves by thinking that the good and pleasurable things in life are more valuable than the way of the cross. They ask Jesus for so many earthly things, to satisfy their own desires, instead of looking at what is His will. Their spiritual eyes are closed, and their self-indulgent behaviors negatively affect others. As Jesus came closer to the cross, His disciples' spiritual eyes should have been wide open, but in fact the opposite occurred. Today's Bible passage shows us that the disciples' spiritual eyes were in fact closed. During his last trip to Jerusalem, Jesus told all twelve of His disciples,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o mock and scourge and crucify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up." (vv. 18~19) Given this serious information, the disciples should have focused on Jesus, not themselves. They had it in their minds that Jesus would go to Jerusalem and be raised up as an earthly king, and with such power they began wondering what positions He would give them. Their main concern was not for Jesus and the tremendous pain and suffering He was about to endure, but rather for themselves and what Jesus could do for them. Jesus' disciples stayed with Him for three years. They thought they knew what to believe, yet during the most crucial time in their lives their spiritual eyes were shut. Their faith is the same faith as ours.

Jesus' disciples heard His voice every day and night for three years, but they were absolutely blind men during Jesus' last days. You believe in Jesus, yet you still act like a blind person when it comes to living the Christian life. The disciples desired to be the best, so Jesus taught them, ".....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shall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vv. 26~28) It was not just James and John who wanted to take advantage of Jesus for their sake, but all twelve disciples acted blindly. As we have followed Jesus during these past forty days of Lent season, have our eyes been spiritually open or closed? Like the twelve disciples, all our church leaders say they are following Jesus this Lent, but are

they? Are our spiritual eyes open or are we blind men and women?

An interesting thing occurred in today's Bible passage while Jesus was leaving Jericho on His way to Jerusalem. Two blind men sitting outside the city by the road cried out to Him, "Lord,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v. 30) The crowd that was following Him got upset with the blind men and wanted them to be quiet, but the blind men cried out all the more,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v. 31) These two blind men really believed that Jesus was the Son of David. It does not matter what position you hold in life, high or low, if you call out to Jesus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He will answer you. Jesus stopped and asked the blind men,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v. 32) The blind men responded, "Lord, we want our eyes to be opened." (v. 33) Their request was different tha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wanted position, fame, and reputation. (v. 21) The blind men wanted to be healed. They believed Jesus was the Messiah, and therefore could actually do it. Most people cannot ask Jesus to open their eyes because they do not have faith. They will ask Him for a bunch of stupid things but not for the important spiritual things. It is easy to ask a regular person for a position, but will you ask him or her to make you walk if you are lame? The blind men showed true spiritual faith in Jesus, the disciples did not.

My dear friends, let us ask Jesus Christ, let us cry out to Him, "Lord, please open our spiritual eyes." We ask so many earthly things of Him, things of our own desire, and we do not look at what is His will. We only look at the glory of worldly things. We only look for the good things in this life. Blind people think material wealth and physical health are more important than following Jesus. Jesus' cup is the cross. His way is the narrow way, which requires us to deny ourselves, take our own cross, and follow Him. When we open our spiritual eyes we can see the value because it is the eternal way. I want Jesus to open our eyes so that we can simply, purely, and sincerely follow Him. On this 5th Sunday of Lent, like the twelve disciples, we all want to be with Jesus, but unlike them, let us ask Him not for earthly success. Let us ask Jesus to open our spiritual eyes, so that we can see Him, see the value of the cross, see the value of the narrow way, and see the value of denying ourselves. Amen.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¹⁷⁾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¹⁸⁾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¹⁹⁾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²³⁾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²⁴⁾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17~34)



김성관 목사

세상의 욕망을 좇는 사람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속아 그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영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와졌을 때 제자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본말뒤편은 제자들의 영의 눈이 실질적으로 닫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18~19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워 왕으로 다시 등극하실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자신들이 누릴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달라고 건디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영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눈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을 실천할 때에는 여전히 영적 맹인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6~28절) 아고보와 요한만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 모두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순절 기간 내내 열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좇았다고 믿는 하직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눈 먼 사람들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본말뒤편은 예수님이 여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고성 바깥의 길 가에 앉아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30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두 맹인에 대해 화를 내며 그들이 조용히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31절) 두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두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32절) 이에 그들은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33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요청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아고보와 요한은 명예와 권력을 원하였습니다. (21절) 반면에 두 맹인은 눈 뜨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들을 고쳐 주실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눈을 뜨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리석게도 유한한 이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걸을 수 있도록 간구할 것입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세상에 속한 아주 많은 것들과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은 보이는 것들만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눈 먼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면 십자가 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의 눈을 떠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기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교회의 방패와 상급”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1)

* 불쌍히 여기사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매여 산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난 2년 남짓 한 짧은 기간 동안 벌써 그 사랑도, 은혜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나보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죄인이 청년부 팀장, 외선부 교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일주일에도 30시간씩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전 세례 받은 지 고교 1년 밖에 안 된 초신자라구요.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만들어낸 믿음생활에 갇혀 질질 끌려 다니고 있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청지기훈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또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나의 욕심과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기에 오히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있었고,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를 자칭하고 나선 셈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자유케 하소서.”라는 이 죄인의 찬양과 믿음을 받아주셨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언더로 회개할 수 있도록 팔아, 내 공포 하나 없어도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라함 주시며 참 자유와 참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해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다. 그뿐 아니라 경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

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럽고 추한 내 모든 죄악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는 그 은혜를 잊고,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기 위해, 박박 문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피부가 벗겨지고 살갗이 찢어지도록 문질러도 내 스스로는 결코 피를 수 없는 나의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그 흘리고 상처난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이 친히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매순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길 기도하셨다.

박선진(전통, 3교구)

*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영적 전쟁

어머니와 함께 제1차 청지기훈련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위임장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한 절 한 절 모든 성도들과 읽아가는 성경구절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너무나 웅장해서 잘 부르지 못하는 것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

특히 말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시련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혹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잊지는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청지기훈련 책자의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나의 미래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므로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

최혜은(중동2부)

*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10여 일이 훌쩍 지나갔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였고, 돌아와서는 주님과 떨어져 살아온 나의 지난날에 대한 회화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일까?’ 하는 때 늦은 고민에 빠져 혼란스러워 할 때 즈음에 제1차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청지기훈련의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그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주셨다.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궁극에는 이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지난 날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 말라 우리의 기지근, 종교관, 신 앙관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주 여호와께 항복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는 사라진다.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근심 하거나 두려워 말라 방패 되시는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주님은 그의 자녀를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서 외롭고 조롱받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 뒤를 호위하시리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련이 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호위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볼 것이다.

증거된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웠던 고민들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나 같은 죄인까지 부르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채워졌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전혀 다른 나로 바뀌었다. 이제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닥칠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떠한 이가 하나님보다 큰 방패와 큰 상급을 가졌는가!

정혜연(전통, 청년2부)

*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청지기훈련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딤후 2:3) 그리스도의 군대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제명의 날까지 늘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전이라.”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가!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먼저 가지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승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김미연(집사, 13교구)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겠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곧 이 병고와 절교가 예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받으면서 체중이 16kg이나 줄었을 때에는 나 자신도 내 물품을 보기가 힘을 정도였습니다. 겨울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지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병실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증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주위 환자들은 "당신이나 잘 믿고 가시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당신은 왜 몸을 병에 걸려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라고 비난하 거었습니다. "제가 이 병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더욱 힘차게 말하니 "예수영이한테는 못 당해."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병실에서도 입을 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수술날짜가 잡혀 병상에 누우면서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님은 위임목 사임을 비롯한 한 지체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수술실 안에 도착했을 때 마취의사가 "이 환자가 수시 위임목사님과 총환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심령 안에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던 지난 19일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한부인생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앞으로 3개월, 잘 해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의술은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방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이제부터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천지기후련을 마치고 요양을 위해 병원에 떠납니다. 떠나는 저에게 예수님은 "강만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 위임목사님과 총환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게 될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강만호(한수집사, 12교구)

* 말씀을 방패상아

"엄마, 우리 집이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라는 딸아이의 말처럼 2007년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진정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사한 한 해였다. 유교가정에서 성장한 남편은 조상의 은혜를 가장 크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는 나왔지만 신앙은 전혀 없었다. 남편은 큰 집 서버넌 제사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어요."라고 버티는 아이를 억지로 무릎 꿇게 하였다. 또 딸아이에게는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시험기간 중에 공부하는 안하고 찬양연습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냐?"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화를 내던 남편이었다.

그러던 그가 작년부터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하였다. 주야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으면서 선교를 다녀오고, 찬양을 너무 못하는데서 찬양대원양성부 과정도 수료하였다. 지금은 교사양성부 수료 후에 중등3부 교사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이번 천지기후련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섯 분을 모시고 왔다. "오늘 밤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할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하신 말씀이 도전이 되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우리 가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 것이다. 아무 근심이나 두려움없이 말씀을 방패상이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미라(집사, 7교구)

* 온 가족이 받은 은총의 말씀

이번 천지기후련은 저에게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엄마와 저, 단 둘이 천지기후련을 왔었지만 이번에는 아빠도 함께 천지기로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천지기후련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었고, '너야해졌던 제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천지기후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내루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열려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이번 천지기후련을 통해서 해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은 다쳐를 짓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이끄시며 뒤에서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학년이 되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은 방패로 막아 주실 테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천지기후련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열심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깨달을 수 있었던 천지기후련이 되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예진(교동부)

*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관과 양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 나는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과 가치관과 신앙관 안에 불복령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내게는 선한 것이 나눌 수가 없는 데 나는 내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 그런데 제1차 천지기후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하라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가치와 기준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려 하나?"고 말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승리를 주신 주님이 천국열쇠를 주시며 천국의 여러 열매를 소망하게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고집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십자가로 인한 시련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이상향 때문이었고 그것들에 나 스스로가 얽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가 주님은 천지기후련을 통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온전히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열적 전쟁에서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진리가 바 진리와 맞서 싸워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군사인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에서 해방지라도, 타오르는 불가마를 거쳐 갈지라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못 뱉었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은총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밖에는 없사오니 주님께 아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연약한 자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승(대학부)

마가복음 강해 ⑦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군중, 가족과 친족들 (3:20-21)

다.(막 3:20) 이처럼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으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하였다. 군중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이 탐심으로 가득한 군중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요일 2:15) 동시에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로마 10:14~15)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오라!"고 부르신다.(마 11:28; 사 55:1) 예수님께 나아올 때 생명의(계 22:17)를 마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군중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락의 정욕, 이성의 자람에 정신이 팔려 있다.(요일 2:16)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매우 놀라웠던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가족과 친족들의 태도이다. 군중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자로 믿지 않았다. 단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종교지도자들의 위협이 두려울 뿐이었다. 유대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다.(막 3:21) 마치 기독교를 잘 알고 있는 유대 총독

베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행 26:24) 군중,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군중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인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였다. 환난과 핍박이 두려웠던 것이다. 군중,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처럼 우리도 탐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 같으면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요 19:6) 이 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마 14:33; 막 1:1; 요 1:34)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탐심으로 가득한 군중의 욕망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절대로 미치지도 않으셨다. 문제는 군중,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히 10:29)는 주님의 경고도 잊지 말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요일 4:15) 우리의 타락함과 열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이 땅의 것들뿐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상과 섞인 종교관을 버리자.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탈피하자.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십자가를 맞추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자신의 가치를 맞추자. 주님은 자신을 중심에 둔 가룟 유다의 회개(마 27:5)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둔 베드로의 회개(마 26:75)를 원하신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세상의 힘이 아닌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자.(로마 1:16)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복음을 위한 우리의 소구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고전 15:58) 아멘.



가버나움의 회당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위원회



김명욱(장로, 봉사위원장)

봉사위원회가 봉사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있습니다. 충현 교회 5대 목표 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봉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봉사위원회 안에는 여러 개의 봉사부서가 있습니다. 구제부, 생활구호부, 차량안

내부, 자원봉사부가 있습니다. 구제부는 교회의 성도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쌀과 부식을 드림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구호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불행형편인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도우며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차량안내부는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매 주일과 금요일장미빛 및 교회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 교회에 오시는 은 성도들의 차량을 안내하여 원활한 소통을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차량 안내 부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위원회 부서 중 최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활발히 움직이는 자원봉사부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조정에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부는 미화봉사팀, 통산 및 기도원봉사팀, 주일봉사팀, 달란트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화봉사팀은 각 교구별로 24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본당 및 교회학교 예배실과 부속실, 각 건물 지하주차장, 교회 내 화단과 교회주변 공간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산 및 기도원봉사팀은 매 주 토요일에는 안수집사회, 화요일에는 권사회 중심으로 충현기도원과 충현통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봉사팀은 주일에 사용되는 집회실과 화상실 및 교회주변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교구별로 순번을 정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식당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팀은 '행정, 전산, 전기, 음향, 영상, 조정'의 6개 분야로 나뉘어 모든 성도들이 달란트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로님들과 교역자님들을 비롯하여 25,245명의 성도들이 36,657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이나 자원봉사실(본당 101호, #421)로 오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자재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엡 2:20~22) 따라서 교회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봉사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형상 말씀과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매순간 회개(마 4:17)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마 16:24)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기적같은 시간들

22교구 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셨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람을 깨달아 알게 하셨네.
옛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 쉽게 상처받고 다치고 아파하는 말에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네.
예전에 우리 땅에 떨어뜨린 십자가 사람의 고귀한 씨앗처럼
선교지에 피 물은 십자가 사람을 심고 오라 하셨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을 림으로 붙여 주셨고
언어가 부족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 주시며
기도하며 섬기며 담대하게 전하라 하셨네.

찬양을 예쁘게 따라하는 어린 아이도, 젖 먹이며 일하는 아낙도,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계속 전하라 하신 새까만 이를 가진 할머니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학에서 일부터 옆에 가까이 온 고등학생도,
부족한 언어는 더 이상 예수 십자가 전함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어
그곳의 영혼들을 말씀의 겹으로 깨워 주시어
닫혀 있는 영혼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어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에 사용되어짐을 감사하게 하셨네.

국경지대에서 어려움을 주시어
하나님은 우리를 전함의 기쁨만 누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낮아짐과 감사를 채워 주셨네.

눈으로 당신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임으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시며, 손으로 당신의 사랑을 행하도록 하며
말로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네.
말로 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이 가슴을 벅차게 채워 주시네.

조미령(집사, 6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6일(목) ~ 3월 14일(금)	21교구 1지역	이영식

새가족양육부 2월 수료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십자가의 사랑

♥ 증원교회 3교구의 어떤 집사님의 권유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국 죄와 죄 값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 볼 때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그 피 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렸고 바를 때에도 교회에 출석고 기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데 마음,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최영만)

♥ 저는 89년부터 증원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가 등록하였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에게는 치어거니와 구원의 기쁨이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확증입니다. 종전의 성도가 된 것이 정말로 기쁘고, 특히 새가족양육부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과 교제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조금했던 성경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여유와 평안이 넘칩니다. (이종희)

(편집국)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36	이영제	19 장년2부	최순금(19)
337	권오철	17 대학부	박봉선(4)
338	이영구	17 청년1부	장년1부
339	김지선	18 청년1부	장년1부
340	성현우	14 청년1부	박재현(24)
341	백인영	21 청년2부	박봉선(4)
342	박수현	21 초등부	박봉선(4)
343	박재민	21 유년부	박봉선(4)
344	안성훈	23 청년2부	이현진(11)
345	박유라	25 외선부	조은선(10)
346	득수	25 외선부	최규태(2)
347	김종환	24 청년1부	도병희(1)
348	윤미성	4 청년2부	강여경(4)
349	박갑수	9 장년1부	박봉선(1)
350	박정애	9 대학부	박봉선(1)
351	한성희	7 장년1부	
352	김준용	7 중동2부	
353	이승희	15 장년2부	
354	김종대	1 장년1부	김재기(6)
355	양동진	15 대학부	김현진(6)
356	최희용	18 처녀1부	최영희(3)
357	이민호	18 소망부	이영희(18)
358	박정민	1 청년1부	이영희(18)
359	김무미	2 중동3부	

* 증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